금오문도회 門長…직지 첫 국역, 시집 · 수필집 여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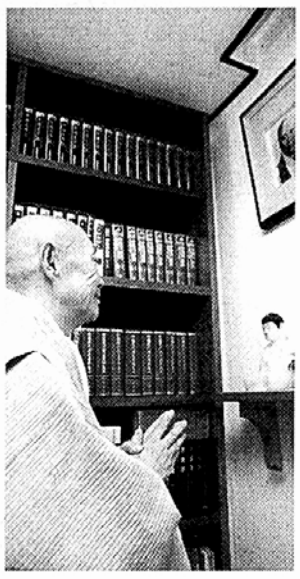
이두스님은?

이두 스님은 1929년 강원도 김화에서 태어났으며 51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화사 강원과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71년 갑사 주지, 78년 법주사 주지를 지냈다. 83년부터 청주 우암산 관음사에 주석하며, 폐사지였던 곳을 새롭게 중창, 청주의 중요한 포교중심도량으로 가꾸어 놓았다.

그동안 시집 <겨울 빗소리>, 수필집 <푸른 산방> 등 여러 권의 저서를 냈으며 앞으로 시집 30권을 채울 계획이라고 하신다.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고 서양철학에도 해박한 스님은 금오스님의 상좌와 손상좌 들의 모임인 금오문도회 문장(門長)을 맡고 있으며 2001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출됐다. 혹독한 병고를 치르기 전까지만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만행다니기를 즐겨하며 '시심불심(詩心佛心)'을 다듬어온 이두스님은 선과 함께 교학에도 밝기로 이름이 났다.

<직지심체요절>을 처음으로 한글 번역한 스님은 국조 단군왕검에 대한 체계적인 글을 써보고 싶다고 하신다.



좋은 과보 받도록 노력하길



◇소탈 겸손하고 어린아이같은 동심을 그대로 지닌 이두스님. 매일 옳은 일을 하여 옳은 인연을 만들라고 하신다.

화내고 큰소리 치면 이기는 것 같고 당장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거품같이 실체없는 것

번뇌 망상들이
돌처럼 굳어져서
중생 됐으니
망상없는 한마음은
부처님인저

성불은 관념으로 만들어짐 아니라
일음 녹아지면 다시 물이듯
망상만 없어지면
불심에 환원되나니

망상 기능이
상실할 때까지
염불 참선 삼매 정진
쉬지 말고 해야 할지니라

망상없는 한 마음
나타나면
천지가 물이 아니고
형형색색
두두물물
모두 다 나뿐일지니

낙엽소리 새소린들
어찌 또
어찌 부처님의 목소리 아니랴

낙엽소리 낙엽소리
새소리 새소리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는 가을에는.

국내인구 절반인 종교인 앞장서 자비행 실천해 '정토' 이뤘으면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돌고 변하며 성주괴공하고 있다.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모든 것은 결과가 지어지는 것이다' 이 이치를 밝게 안다면 어찌 분별망상을 갖고 무명에서 허덕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실하게 체득하지 못하거나 내 생의 과보를 무시한 채 그저 하루하루 탐욕에 끄달리고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다고 원망하고 섭섭해해야 할 일이 아니지요. 또 금방 업보를 받지 않는다고 방자하고 교만할 일도 아닙니다. 인과를 믿는 사람은 설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분심이나 복수심을 내서는 안돼요. 언젠가 그런 원인을 지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하나 새로운 업을 짓지 않아야 하지요."

큰 스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인과응보는 에누리 없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업의 과보는 신분 성별 귀천 빈부 차별이 없다. 그러니 좋은 일을 하여 좋은 인연을 만들고 좋은 과보를 받도록 자신을 점검하고 스스로를 닦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좌 현진스님은 "은사 스님께서는 인과법을 철저하게 믿어 인과를 무서워하고 자기 생활을 철저하게 점검하면 중노릇은 저절로 잘하게 되는 법이라고 늘 말씀하시죠"라고 덧붙인다.

생활속에서 불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주셨다.

"가끔 보면 법당에 촛불이 켜 있는데도 자기가 가져온 초로 바꿔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촛불을 켠 지 얼마 안된 새 초인데도 그렇게 하더라구. 무심코 하는 행동일 수 있겠지만 공덕을 쌓을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부처님께 새 초로 공양을 올리려는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마음은 그대로인데 초만 새 것이면 뭐해요? 차라리 켜 있는 촛불을 그냥 두고 새 초를 사는 돈으로 주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쓴다고 해 보세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니 첫째 좋은 일이고, 또 자비행을 행하라는 부처님말씀을 실천에 옮겼으니 부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째 좋은 일이고, 물자 절약이 되었으니 이 또한 좋은 일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천만명이 넘는 불자가 있고, 기독교인도 수백만명이다. 종교인들이 인구의 반을 훨씬 넘는다. 스님말씀처럼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자비행을 열심히 행한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욕심이 없다면 성낼 일도 없고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생이 겪는 모든 병의 근본을 찾아 올라가면 탐진치 삼독에 귀결되고 또 이것을 하나로 집약하면 탐심으로 귀결됩니다. 욕심 하나만 잘 다스려도 마음이 저절로 청정해지고 주위까지 환해져요. 우리는 날마다 탐진치를 뛰어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화내는 마음을 뛰어넘고 탐욕스런 마음, 거짓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뛰어넘어야 해요.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하다보면 본래의 마음이 밝아옴을 느낄 거예요. 이것이 수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행정진을 계속하다보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설로 진리 그 자체임을 아는, 열린 마음이 될 거예요"

수행 열심히 하라는 이두스님의 간곡한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일어서려는데 스님은 몇 년전 '열린 마음 한 마음'을 주제로 시를 지어 문예지에 발표한 것이 있다며 시를 하나 소개하셨다.

글=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 혜각스님



오늘날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있다. 풍요로움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가난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으며 갈수록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풍요로움과 편리함에의 추구는 세속을 떠난 산속 수도자들의 세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깊은 산 속 암자에도 문명의 이기들은 어김없이 찾아와 깊숙이 들어앉아 있다. 물질의 풍요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풍요로운 물질의 세계에 길들여지다 보면 예외 없이 맑고 투명해야 할 정신이 황폐해지기 마련이니 그것이 걱정이다.

며칠전 통도사 성전암에 살고 있는 도반을 찾아가 하루 머물다 왔다. 우리는 주로 가난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넉넉했던 지난 시절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도반스님이 들려준 혜각 노스님에 대한 이야기다. 십여 년 전 어느 날, 도반스님은 부산에서 일을 보고 통도사로 돌아오는 길에 병풍을 지고 걸어서 귀사하시는 혜각 노스님을 만났다. 얼른



차를 세우고 병풍을 받아서 뒷좌석에 싣고 스님을 차에 태워드렸다. 절 가까이 이르렀을 때 노스님께서 "고맙소, 이제 다 왔으니 그만 내려주시오." 하시길래 병풍을 내린 다음 인사를 드린 뒤 저녁공양을 마치고 산책을 나갔다. 그런데 저만치서 노스님께서 병풍을 지고 걸어오시는 것이 아닌가! 노스님께서는 차를 타고 왔던 삼십 리도 넘는 길을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걸어오신 것이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박장대소하며 웃었다. 그러나 웃어버리고 말기에는 너무나 큰 무엇이 내 가슴에 남았다.

도반스님은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훗날에야 안 일이지만 그 병풍은 노스님께서 평소 존경하는 석정스님이 그려주신 것이었다. 노스님께서는 그림을 그려준 석정스님에 대한 존경심과 작품을 정성껏 대하는 마음으로 걸어 들어오는 길이었다. 편리함만을 좇아 그것을 자동차에 가볍게 싣고 오기에는 노스님의 마음이 허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동차를 태워드리겠다는 후학의 성의를 무시하고 싶지 않았기에 차를 탔다가 되돌아서 다시 걸어온 노스님의 이야기는, 정성은 생략된 채 편리함에만 길들여진 오늘날의 우리 출가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혜각스님은 뛰어난 단청기능을 보유하신 스님이셨다. 통도사의 단청이 아름다운 것은 모두 혜각스님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통도사 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찰의 단청이 스님과 스님의 제자들에 의해 단장된 것이다.

다른 업자들이 천만원을 요구하는 일거리를 스님은 오 륙백만원이면 된다고 하셨고, 오백만원에 계약하면 육 칠백만원어치 일을 하셨다. 그리고는 다른 어떤 업자가 일한 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일을 처리했고 아름다운 단청을 만들어 내셨다. 그것은 스님께서 손수 버팀목을 메고, 높은 곳에까지 올라가 처마를 쳐다보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혜각스님은 생전에 한번도 법상에 올라 설법하신 적이 없다.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시지 않는지요?" 여쭈면, "나는 법상에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법상보다 더 높은 처마 끝에는 매일 올라갑니다"하며 웃곤 하셨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팔십이 넘도록 그림통을 메고 사다리에 올라 온종일 추녀끝에 매달려 단청 그리는 일에 몰두하시던 스님의 모습은 어느 큰스님의 법상보다도 장엄했고 아름다웠다.

병풍 진 노스님 차로 모셨더니 차탄곳 되돌아가 다시 걸어와

스님은 일을 하시다가 떨어져 여러 번을 다치셨다. 다른 사람 같으면 죽거나 크게 다칠 높이에서 떨어졌지만 마치 신장님이 받아주시기라도 한 것처럼 많이 다치지 않으셨으니 스님의 정성과 신심이 지극하셨기 때문이리라.

일을 하시고 돈이 조금 생기면 반드시 서화나 골동품 같은 것을 사서 모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통도사에 기증했으니, 오늘날 불교계 제일인 통도사박물관이 혜각스님의 기증품에서 그 기틀을 잡은 것이나 다름 없다.

오늘날 우리 승가엔 혜각 스님 같은 분이 없어 허전하다. 법문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에 정성을 다했고, 존경하는 분의 그림을 병풍으로 만들어 수십 리 길을 지고갈 만큼 순수했던 진짜 스님은 없다. 배고프고 고달픈 일은 아무도 하려 들지 않는 풍토가 되어버린 지금, 어쩌면 혜각스님의 이러한 이야기는 고전으로나 남을 전설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다.

가난한 수행자의 길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저 푸르렀던 지난 시절이 그립고, 한평생 화려한 법상은 없었어도 부처님 일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신심을 지니고 살다 가셨던 혜각 노스님 같은 선지식이 그립다. 물질의 풍요가 수행자의 속살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건만 어느덧 그것에 익숙해진 나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 구미 영명사 주지

3일 안에 깨닫는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의 백림사(하북성 조현)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3일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일상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자기 조상과 타인의 조상을 천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시공을 초월한 존재의 근원으로 소원을 성취하고 운명을 바꾸는 능력
- 고도의 정신집중 능력

禪林 주위환경
수려한 경관에 수련지 전용 현대식 목조주택, 수목원, 산책로(호수), 약수

수련과정

本性 3박4일	참마음
一性 1박2일	實體없음, 時空없음, 無分別智
無碍法界 2박3일	眞空妙有, 寂照現前 無分別後得智 업장소멸, 조상천도(薦度), 마음의휴식
無上覺 2박3일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自發的삶 꾸리기, 氣(에너지), 마음과 최면(催眠), 삶의 유희(遊戲)
安息 2박3일	藥이 필요 없는 온전한 몸 다루기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총마음수련 心田 대광사

제운스님 달마선묵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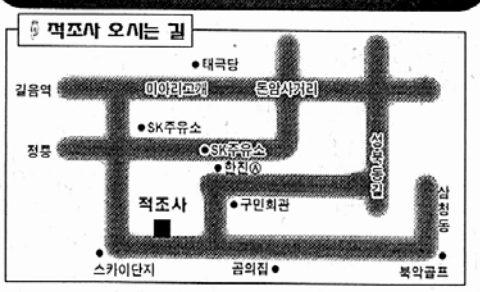
인 사 말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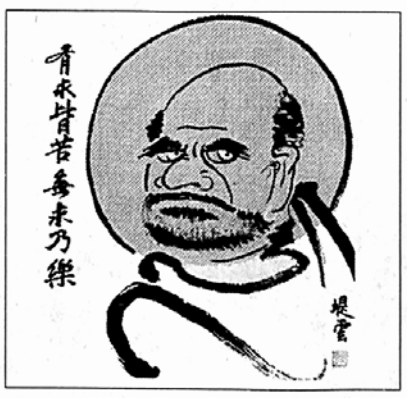
봄날의 오후
햇살이 더욱 포근함을 느끼는 때 小納제운, 禪農하는 마음으로 韓紙며 순지, 화선지에 한장 한장 그리고 쓰고 觀하기를 마치고 오늘 대덕스님과 善男子 善女人을 모신 場을 마련하였습니다.
觀心과 온정이 깃든 질정이 되어 주신다면 佛事에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적조사 주지 제 운 합장

□기 간 : 2002년 5월 10일(금)~ 5월 15일(수)
□초대일시 : 5월 10일(금) 오후 2시
□장 소 : 적조사 경내
□문 의 : 02)924-5362~3

적조사 오시는 길





■달마 / 한지에 먹과 금분 47.5 × 40.5cm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적 조 사 주지 제 운 합장